

환경변인 및 내적통제력,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농촌, 도시비교—

Influence of environmental variables, inner control and communication with parents on adolescent's stress
—compared rural with urban—

영남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박사과정 백 양 희
영남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교 수 최 외 선

Dept. of Home Management Yeungnam University.
Doctoral Course : Yang Hee Baek
Dept. of Home Management Yeungnam University.
Professor : Wae Sun Choi

〈목 차〉

- | | |
|------------|-------------|
| I. 서론 | IV. 결과 및 고찰 |
| II. 이론적 배경 | V. 결 론 |
| III. 연구 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differences between rural and urban in the factors and the level of stress in adolescent, inner control and communication with parents.

Also, It is to research the influence of environmental variables, inner control and communication with parents on adolescent's stress in sides of rural and urban. Therefore, I provide needed data in instructing students. For the data set, academic high school students in second grade in a town for rural and Su-Seung gu, Dal-Sugu, Chung gu in Dae-gu for urban were chosen.

The data were analyzed with the frequency, percentage, factor analysis, Mean, S.

D, reliability, t-test, regression in use of Spss PC* Program.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

First, for rural students, stress level is displayed studies, future-affair, life-attitude, companions, self-assurance and home life in order by lower sphere. For urban students, it is displayed future-affair, studies, life-attitude, companions, self-assurance and home life in order by lower sphere.

In case of rural "I don't know effective study method" is highly displayed by factors. In case of urban. "I am tired of a competitive life" is highly displayed. The mean of stress level is 3.22 for rural and 3.07 for urban. The differences between rural and urban are showed in self-assurance, studies and companions. Finally when we see the stress generally, the stress level is higher in rural high school students than in urban high school students. second, rural students are lower displayed than urban students in inner control and communication with parents. There is no difference in communication with a mother. Third, influential variables on stress level are inner control, communication with parents, satisfaction with companions and school life as environmental variables in sides of rural and urban. Physical condition is added for rural and sex for urban Finally we get the result that stress level is high in low inner control, poor commuication with parents, bad companions and unsatisfied school life for both rural and urban. Bad physical condition for rural and female for urban are added.

1. 서 론

부모들은 물론 청소년 교육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청소년이 올바르게 정상적으로 성장 발달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청소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교육되느냐 하는 문제가 바로 우리 나라의 장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장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의 지도야말로 중요한 것으로, 진지하게 연구 되어져 왔고 또 앞으로 더욱 더 연구 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스트레스적 환경을 통해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알아 보고자 한다.

인간의 발달 단계 가운데서 시기적으로 청소년기에 속하는 고등 학교 학생들은 현대 산업 사회로의 급진적인 전환, 가족 제도를 포함한 전통 문화의 붕괴, 그에 따른 사회적 변화 안에서 개인의 심리적, 생리적, 인지적 변화를 겪으면서 학업 문제, 교우 문제, 가족내 부모와의 갈등 문제 등으로 고민하고 있

다.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방법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며(이은영, 1981), 스트레스 반응도 개인에 따라 달라진다(이종목, 1985). 이는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동일한 생활사라 할지라도 그것을 스트레스로 지각하는 정도가 개인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차 변인 중에서 광범하게 연구된 변인 중의 하나가 성격 개념의 일종인 통제성(controllability)이다. Quick(1984)등에 따르면 자신에게 환경 통제력이 있다고 믿는 내적 통제적인 사람들이 스트레스 사건의 위협을 덜 받으며 또한 더욱 적극적인 대처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한다.

여러 선행 연구에서도 내외 통제력 및 스트레스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Glass, 1977; 이훈만, 1986).

또한 청소년기에 가정 생활 가운데서 발달상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가족간의 인간 관계라 할 수 있다. 성격 형성에 있어서는 가족 관계 중에서도

乳幼兒期 때의 부모와의 관계가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지적되고 있는데 청소년기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부모와의 관계의 중요성은 역시 동일하게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Thomas(1977)는 부모-자녀 관계를 강화 시키기도 하고, 약화 시키기도 하는 매개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모-자녀간의 갈등을 해소 하는데는 대화가 필요하며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은 상호간의 공통적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차은정(1992)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부모-자녀간의 개방적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청소년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내적 통제력과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청소년기의 스트레스에 작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Lazarus(1984)는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란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에서 생기는 것으로 보고, 개인의 인지적 작용의 중요성을 인식함과 아울러 사회적·심리적·생리적 차원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Seigel(1982)의 아일랜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문화적 차이가 성격발달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고하였고, 그러므로 청소년은 일반적으로 그 사회의 문화적 산물로 일컬어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문화적·환경적 차이가 있는 농촌·도시라는 지역사회를 달리하면서 가지는 이들의 스트레스적 요인과 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고 또한 스트레스에 영향을 줄 요인으로 추론되는 심리적 특성으로서의 내적 통제력과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농촌·도시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려 한다. 아울러 환경변인 및 내적통제력,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스트레스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농촌·도시별로 알아보려 한다.

우리나라의 농촌의 경우는 부모들이 자녀의 학교 활동에 참여는 거의 없으며, 학교와 지역 사회의 연대 관계도 밀접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더욱이 부모 모두가 과중한 농업 노동에 참여해야만 하는 농촌 가족들이지만, 그러나 농촌 주민들은 농

경지를 확대하는 것이나 좋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자녀 교육에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있다(박평석, 1984)고 보고하고 있다.

도시의 경우 특히 경쟁적인 학교분위기, 부모와의 대화단절 또는 자녀수가 적어지는 추세 등으로 부모들의 지나친 기대와 자녀들에 대한 과대평가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장인기, 1983; 김은경, 1984).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스트레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으나 고등 학생들에 대한 연구는 별로 많지 않다. 더욱이 농촌과 도시 고등 학생들에 대한 비교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의 스트레스적 요인을 찾아내어 그들을 이해하고 그 기초 위에서 스트레스를 적절히 조절, 통제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II. 이론적 배경

1. 환경변인과 스트레스

1) 가정 환경

농촌가정은 산업화와 그에 따른 사회변화와 함께 가정기능의 변화·축소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자녀 사회화의 기본단위는 여전히 가정이며 인간교육의 최선의 장소이자 기본적인 장소로 성숙한 인간을 키우는 기초가 되는 것이 가정이라는 데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전통적 부자중심의 가족관계 또한 변화를 겪고 있고 부부 모두가 과중한 농업노동에 참여해야만 하는 현재, 부모-자녀와의 대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아울러 핵가족 제도, 자녀수가 적어지는 추세, 별거 및 이혼 부부의 증가 등 이른바 변화와 단절의 시기가 도시 뿐만 아니라 농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 자녀들의 정서 불안 수준은 점차 높아지는 실정이다. Melson(1980)은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가 곧 자녀의 성장, 성숙을 지체시키고, 애정 결핍과 대화 단절을 초래하여 적응 능력의 저하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도시가정은 부모들의 지나친 애정과 관심이 과보호로 나타날 수 있는데 자녀들은 자아 독립의 욕구 증대와 충돌하여 오히려 청소년들에게는 커다란 정신적 부담과 불만의 요소가 된다. 장인기(1983), 김은경(1984)은 부모의 이러한 태도가 청소년들의 정서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한편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편애, 가족간의 불화나 가족의 이탈, 비행은 청소년에게 커다란 스트레스원이 될 수 있다.

2) 학교 생활

학교 생활이 청소년기의 가장 큰 스트레스원의 하나라는 사실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밝혀졌다(이정숙·조길자, 1982; 안병조, 1984). 고등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부딪치는 가장 큰 스트레스로 지적되는 것은 시험과 평가에 대한 불안과 긴장이며 또한 시험의 실패 결과로 나타나는 성적의 부진으로 심각한 좌절과 우울을 경험하게 된다. 부연하면 이종명(1966), 채종관(1972), 이진경(1980)은 학교생활을 고등학생들의 가장 중요한 개인적 문제로 지적하였는데 일과의 대부분을 접하는 학교 생활에서의 교우간의 학력차, 학교의 시설과 규모, 학업성취동기의 상실, 학교의 지역지명도 등과 관련하여 많은 심리적 갈등과 곤경에 놓일 수 있다고 했고 또한 획일적 집단 교육에도 염증을 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농촌·도시간에 지역적으로도 차이가 있으리라고 본다. 또한 교사와의 관계를 연구한 Yee(1968)는 중산층 학생에 대해서는 교사가 관용과 융통성을 보인 반면 하류 계층 학생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전통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고영식(1985)의 조사 결과에서 특정 교사에 대한 기피도가 72.4%로 높게 나타난 것에 비추어 학교생활에서도 교사의 편애 등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높을 것으로 본다.

3) 친구 관계

Riesman(1961)이나 Eisenstadt(1972)등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통지향적 사회가 붕괴되고 가족이나 친족집단의 유대가 약화되면 젊은이들은 부락의 성인들이나 집안의 어른에게서 벗어나서 또래집단

(peer group)에서 동일시 대상을 찾으며 수많은 자생적인 친우집단을 형성하고 그들의 집단규범을 따르려는 경향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고등학생들의 또래집단(peer group)형성은 대부분 친구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Kovach(1983)는 또래집단에서 제외될 때 청소년의 주변인적 특성은 더욱 가중된 소외와 좌절을 유발한다고 하고 있으며 도시의 경우는 정서 중심적 친구 관계가 이기적 친구 관계로 변화함에 따라 특히 불안 수준이 대체로 높아 가고 있는 실정인 것 같다. 따라서 농촌·도시 청소년들 모두가 친구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및 갈등 수준, 불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2. 내적 통제력과 스트레스

내·외 통제력은 1950년대 미국의 심리학자 Phares에 의해 처음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후 Rotter가 이 개념을 그의 사회 학습 이론(Social Learning Theory)에서 정립시켰다.

Rotter(1966)는 성격을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그 중 하나는 내재적 통제성격(internal control)이고 다른 하나는 외재적 통제 성격(external control)이다. 내재적 통제 성격은 한 개인이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자신의 행동에 따라 일어난다고 지적하고 자신이 그 사건들을 조정할 수 있다고 믿는다. Rotter의 설명에 의하면 내재적 통제자는 그에게 일어난 어떤 사상이 자기의 행동에 달렸거나 자신의 고정적인 특성에 달린 것으로 믿는다고 하였다.

요약하면 환경에 대한 통제력의 소재(Locus of Control)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통제력의 소재를 자신의 행동이나 자신의 고정적인 특성에 달렸다고 보면, 즉 자신에게 두는 사람을 내재적 통제자라고 하고, 다른 외적인 힘에 돌리는 사람을 다시 말해 결과의 원인을 행운, 기회, 운명, 힘이 센 사람,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돌릴 때 외재적 통제자라고 한다.

따라서 내적 통제성이란 자신의 행동과 이에 따르는 강화간의 인과 관계를 어떻게 지각하는냐 하는

것이다. 개인이 내적 통제력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의 여러 가지 가치관, 태도 및 행동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내적 통제력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지닌 개인을 나타내는 심적 상황을 가장 잘 범주화한 것으로 보여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이나 미래의 사건에 대하여 통제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일이든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게 된다.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Strickland, Nowicki와 Brissett(1973), 손종식(1974), 김춘희(1976) 등은 내재적 통제자가 외재적 통제자에 비해 더욱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며 더욱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반응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려는 성향이 강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내적 통제력과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Glass(1977)는 내적통제의 성격일수록 통제할 수 없는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며 또한 이를 통제하기 위한 투쟁을 한다고 설명하고 스트레스 표현이 적다고 하였다.

Matthews(1982)는 내적인 사람은 보상이나 강화가 자신의 통제권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외적인 사람보다 스트레스 조건에서 덜 위협을 받게 되며, 지나친 반대적인 반응은 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 그러한 내부 지향적인 사람이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제하는데 실패하게 되면, 반응을 포기하고 행동은 무력해진다(Storkols 등, 1978).

다시 말해서 내적 통제력을 믿는 사람 즉, 내재적인 사람은 환경을 자신의 힘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고 본 결과 사건을 자신의 행동 결과의 책임으로 보며 외적 통제력을 믿는 사람 즉, 외재적인 사람은 환경이 자신의 행동 결과의 책임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지각한다는 것이다(송태욱, 1984).

국내에서의 김정겸(1987)의 연구에 의하면 자신의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 행동의 효과에 대한 지각은 내적 통제자일수록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지각한다

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고찰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내적 통제력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되어 농촌·도시간의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3. 부모-자녀와의 의사 소통과 스트레스

Thomas(1977)는 가족내에서 부모-자녀 관계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약화시키기도 하는 매개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 소통이라고 한다. 의사 소통은 태도, 생각, 애정, 사상 등을 전달해 주는 인간 관계의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가족을 보면 구성원 상호간의 의사 소통이 가장 공통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Bowlby(1972)는 자녀의 성장 발달에 영향을 주는 대부분의 조건이 부모와 연결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부모의 부재, 양육 태도, 양육 방법 및 언어 습관이 자녀의 성장 발달을 결정하는 중요한 여러 변인으로서 그 중에서도 부모와의 언어적 상호 작용 요인이 최근 30년간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미국의 여성잡지(매콜즈)에서 "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부모와의 커뮤니케이션이며 따라서 청소년 자살과 같은 불행한 일을 예방하는 길도 커뮤니케이션이다"라고 언급하여 부모-자녀간의 의사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상 생활에서의 의사 소통이란 둘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 생각, 의견, 또는 감정의 교환을 통해 공통적 이해를 의식이나 태도,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일련의 행동으로써 '상호간의 공통적 이해'가 중심이 된다(차배근, 1983).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의사 소통은 사람들간에 감정, 태도, 사실, 믿음, 생각을 전달하는 과정으로 상호 대화를 통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서로를 이해하는 모든 수단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 소통은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수정하려는 일방적인 지시, 명령, 훈계, 설교, 비판 형태 등으로 특정지워지는데 이러한 의사 소통 형태는 자녀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 소통

이 기능적이 되려면 상급 지위에 있는 부모가 개방, 감정 이입, 지지, 긍정, 동등성의 자세를 갖고 적극적으로 경청의 노력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Ginott(1961) 역시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건설적인 방식으로 대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즉 부모 자신이 자존심을 갖는 것과 같이 자녀들의 자존심도 존중해 주고 충고나 지시를 할 때는 미리 그 말에 대해 부모 자신의 충분한 이해 즉 자녀의 감정을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사 소통의 개방적인 내용 파악으로부터 부모-자녀간 의사 소통을 '부모와 자녀 사이의 상호 작용에서 감정, 느낌, 생각, 태도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상호간의 공통적 이해를 도모하는 상호 반향적 과정'이라 정의할 수 있다. 즉 자녀는 부모와의 의사 소통을 통해 상호간의 공통적 이해를 도모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가치를 부모에게 표현하고 자신의 의사를 왜곡됨이 없이 전달하므로 내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의사 소통으로 부모와의 경험 공유를 하고 상호 관계 확립 혹은 관계 확인에 자신감 및 안정감도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부모-자녀간의 의사 소통 유형과 청소년 문제 행동과의 관계를 연구한 정명희(1987)의 연구를 보면 부모-자녀간의 의사 소통이 긍정적이고 개방적일수록 청소년 문제 행동이 적게 나타났으며 장호선(1987)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연령이 적을수록 그리고, 소년보다 소녀들이 부모와 더 개방적으로 의사 소통을 한다고 했다.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여학생들이 부모와의 의사 소통을 더 원활하게 하고 있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윤정명, 1983; 고성해, 1985; 민혜영, 1990).

김경화(1989)는 모보다 부가 자녀들에게 가지는 역기능적 의사 소통이 청소년기 자녀의 문제행동과 더 직접적으로 관계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Alexander와 그의 동료들(1973)은 비행 청소년의 가족은 명확하고 의미있는 의사소통을 위한 상호간 강화 능력이 부족하며, 지지적인 의사 소통보다 방어적인 의사 소통을 많이 한다고 지적했고, Jacob(1975) 역시 비행 청소년 가족의 의사 소통 특성을

긍정적인 애정 표현보다 부정적인 감정 표현이 많고 상호간 공통 이해가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선행 연구를 고찰한 바에 의하면 부모-청소년간의 의사 소통이 잘 유지되고 있는 가족의 경우 가족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연구와 부모-자녀간의 의사 소통이 부정적이고 역기능적일수록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많았다는 연구 결과를 고려해 볼 때 부모-자녀간의 의사 소통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연역적으로 도출해 볼 수 있고 아울러 차은정(1992)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부모-자녀간의 개방적 의사 소통을 할수록 신체적 강박증적 대인 예민성·우울증 적대감 등의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자녀간의 자유로운 감정하에서 자신을 잘 표현하는 가정은 청소년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자녀간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는데,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의사 소통이 스트레스에 어느정도 영향을 줄 것인지를 농촌·도시별로 알아보고자 한다.

4. 연구 문제

- 1) 스트레스 요인 및 스트레스 수준에 대해 농촌·도시간의 차이를 알아본다.
- 2) 내적 통제력,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농촌·도시간의 차이를 알아본다.
- 3) 환경변인 및 내적 통제력,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농촌·도시별로 알아본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농촌은 읍소재지를 단위로 한, 도시는 대구시에 있는 구 단위로 남녀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질문지 문항 이해도,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질문지 작성상의 문제점과 타당도 및 신

리도를 알아보기 위해 1993년 5월 24일부터 5월 28일까지 남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100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여 문안 수정 및 척도의 재구성을 하였고, 본 조사는 1993년 6월 7일~6월12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농촌·도시별 각각 450부를 배부하여 회수하였으며, 그 중 응답이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한 각각(농촌·도시) 422부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PC 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신뢰도, 요인 분석, t-test,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사항은 <표 1>과 같다.

2. 측정 도구

1) 고등 학생들의 스트레스 요인·수준 척도

본 연구에서는 고등 학생들의 스트레스 요인을 측정하는 도구로써 Mooney & Goldon(1960)에 의해 제작된 Mooney problem check list(무니문제 목록)를 김호권이 번안한 내용을 근거로 학업, 장래, 생활 태도, 자신, 가정, 교우 문제의 6개 영역별로 총 99개 문항을 연구자가 선정하여 예비 조사를 거쳐 요인부하값 .40 이상을 선택하여 50개 문항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본 조사에 의한 요인 분석을 통하여 Kaiser의 기준에 따라 eigen value가 1.00이상인 6개 요인의 30개 문항을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선정하였다.

스트레스 수준은 'Likert형 5점척도'로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은 높아진다

이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 농촌은 0.90, 도시는 0.88로 높게 나타났다. 요인별로 보면 농촌은 생활태도 .76, 자신감 .71, 학업 .68, 장래 .72, 가정 .67, 교우 .62, 도시는 생활태도 .74, 자신감 .69, 학업 .71, 장래 .70, 가정 .61, 교우 .52로 나타났다.

2) 내적 통제력 척도

내적 통제력 측정은 Nowisky & Strickland(1973)의 Loc 척도(40문항)를 번안하여 36개로 축소한 송태

옥(1984)의 척도를 이용하여 예비 조사를 거쳐 20개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내적 통제력이 높은 것으로 처리되었다.

이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 농촌은 0.64, 도시는 0.68로 나타났다.

3) 부모-자녀간의 의사 소통 척도

의사소통 측정은 Howard Barnes & David H.Olson (1982)의 Parents-adolescent communication scale (20 문항)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잘 되는 것으로 처리되었다. 이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 농촌은 0.83, 도시는 0.93으로 높게 나타났다.

4) 환경 변인

연구 대상의 배경을 설명하는 기본적인 사항으로 가정환경(부직업, 모직업, 부학력, 모학력, 출생순위, 가정분위기, 가정생활만족도, 아버지꾸중정도, 어머니꾸중정도)과 개인환경(용돈, 용돈만족도, 건강상태, 종교, 친구관계)과 학교환경(담임과의 관계, 학교생활만족도, 선생님꾸중정도)으로 18개 문항을 선정 하였다. 그 중에서 부모의 직업, 부모의 학력, 출생 순위, 종교, 월용돈을 제외하고는 정도의 차이에 따라 5점 Likert형 척도로 산출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스트레스 요인·수준에 대한 농촌·도시간의 차이

농촌·도시 고교생들의 스트레스 요인을 알아 보고 스트레스의 심각한 정도(수준)를 파악하기 위해 요인분석, 평균, 표준 편차를 실시하였다. 또한 농촌과 도시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t-test를 통해 검증하였다.<표 2>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스트레스 수준의 전체 평균은 농촌은 3.22(5점만점), 도시는 3.07로서 중 정도를 나타내 보였다. 스트레스 수준을 살펴보면 이 정순(1988)의 연구 결과에서는 전체 수준이 M=2.68

〈표 1〉 연구 대상의 일반적 성격

(N=농촌: 422, 도시: 422)

독립변인	구 분	빈 도(%)		독립변인	구 분	빈 도(%)				
		농 촌	도 시			농 촌	도 시			
가정 환경	성 별	남 학 생	211(50.0)	211(50.0)	아버지	안 들 는 편	315(74.6)	341(80.8)		
		여 학 생	211(50.0)	211(50.0)		꾸중정도	보 통 임	50 (11.8)	40 (9.5)	
	부 직업	무 직	3 (0.7)	4 (0.9)	어머니	들 는 편 임	55 (13.0)	39 (9.2)		
		농 축 산 업	240(56.9)	25 (5.9)		무 응 답	2 (0.5)	2 (0.5)		
		노 무 직	18 (4.3)	8 (1.9)		꾸중정도	안 들 는 편	240(56.9)	226(53.6)	
		판매서비스직	80 (19.0)	140(33.2)			보 통 임	81 (19.2)	88 (20.9)	
		사 무 직	58 (13.7)	129(30.6)		들 는 편 임	101(23.9)	108(25.6)		
		전문/관리직	16 (3.8)	113(26.8)		용 돈	2 만 원 미 만	153(36.3)	174(41.2)	
		무 응 답	7 (1.7)	3 (0.9)			2 - 4 만 원	192(45.5)	180(42.7)	
	모 직업	무 직	82 (19.4)	270(64.0)	4 만 원 이상	무 응 답	76 (18.0)	66 (15.6)		
		농 축 산 업	224(53.1)	23 (5.5)		용 돈	만 족 함	147(34.8)	181(42.9)	
		노 무 직	27 (6.4)	12 (2.8)			만 족 도	보 통 임	119(28.2)	114(27.0)
		판매서비스직	58 (13.7)	75 (17.8)		불 만 임		155(36.8)	126(29.9)	
	부 학 력	국 중 고 졸 이 상	무 응 답	6 (1.4)	8 (1.9)	무 응 답	1 (0.2)	1 (0.2)		
			무 응 답	6 (1.4)	5 (1.2)		건 강 상 태	중 은 편	215(50.9)	220(52.1)
			국 졸	133(31.5)	23 (5.5)			나 뵈 편	보 통 임	132(31.3)
			중 졸	130(30.8)	44 (10.4)		부 응 답		·	1 (0.2)
	모 학 력	국 중 고 졸 이 상	무 응 답	3 (0.7)	9 (2.1)	종 교		기 독 교	59 (14.0)	96 (22.7)
			국 졸	200(47.4)	44 (10.4)		천 주 교	44 (10.4)	41 (9.7)	
			중 졸	155(36.7)	113(26.8)			불 교	87 (20.6)	73 (17.3)
고 졸 이 상			61 (14.5)	261(61.8)	무 교		232(55.0)		212(50.2)	
출생순위	만 이 중 간 내	무 응 답	6 (1.4)	4 (0.9)	친구관계	만 족 함	215(50.9)	247(58.5)		
		만 이	133(31.5)	189(44.8)		보 통 임	119(28.2)	99 (23.5)		
		중 간	110(26.1)	92 (21.8)			불 만 임	86 (20.4)	75 (17.8)	
		내	168(39.8)	129(30.6)		무 응 답		2 (0.5)	1 (0.2)	
		독 자 (외 동 딸)	9 (2.1)	10 (2.4)				담임과의 관계	중 은 편	127(30.1)
무 응 답	2 (0.5)	2 (0.5)	보 통 임	222(52.6)	53 (12.6)					
가정 분위기	화 북 함 보 통 임	화 목 하 지 않 음	51 (12.0)	41 (9.7)	무 응 답	1 (0.2)	1 (0.2)			
		무 응 답	2 (0.5)	1 (0.2)		학교생활	만 족 함	76 (18.0)	124(29.4)	
		무 응 답	2 (0.5)	1 (0.2)			만 족 도	보 통 임	164(38.9)	154(36.5)
가정 생활 만족도	만 족 함 보 통 임	불 만 임	128(30.3)	121(28.6)	선생님	안 들 는 편		308(73.0)	113(26.8)	
		보 통 임	149(35.3)	120(28.4)		꾸중정도	보 통 임	68 (16.1)	256(60.7)	
		불 만 임	128(30.3)	121(28.6)			들 는 편 임	43 (10.2)	52 (12.6)	
		무 응 답	3 (0.7)	1 (0.2)						

〈표 2〉 스트레스 요인·수준에 대한 농촌, 도시간의 차이

요인	분항	농촌		도시		t-Value
		MEAN	SD	MEAN	SD	
요인 I 생활 태도 문제	2. 우유부단한 성격때문에 실천력이 부족하다.	3.55		3.74		t=0.11
	5. 친구와의 대화에 기술이 부족함을 느낀다.	3.15		3.00		
	6. 남 앞에서 내 의사를 충분히 발표하지 못한다.	3.36		3.28		
	11. 실패나 모욕을 당할까봐 걱정하는 편이다.	3.50		3.61		
	13. 모든일에 소극적이고 의욕이 약한편이다.	3.18		2.89		
	48. 나는 항상 다른사람 뒤에만 따라 다니는것 같다.	2.97		2.90		
		3.29	0.77	3.24	0.75	
요인 II 자신감 문제	16. 나 자신의 용모에 대해 자신이 없어 불만이다.	3.27		2.98		*** t=4.05
	26. 다른 사람이 나를 업신여기는 것 같다.	2.82		2.64		
	35. 남과 이야기 할 때 교양이 부족함을 느낀다.	3.05		2.81		
	36. 다른 사람 모두가 나보다 영리하고 현명한것 같이 느껴진다.	3.10		2.93		
	41. 다른 사람이 나의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때가 많다.	3.25		3.10		
	43. 열등감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나기를 싫어한다.	2.43		2.28		
		2.99	0.69	2.79	0.71	
요인 III 학업 문제	4.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교과목이 있다.	3.80		3.16		*** t=3.98
	7. 지나친 경쟁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싫증난다.	3.75		3.92		
	12. 효과적인 공부방법을 모르겠다.	3.93		3.69		
	19. 시험때가 되면 걱정이 되어 공부가 잘 안된다.	3.21		3.09		
	30. 수업내용이 어려워 이해가 잘 안된다.	3.37		3.04		
	46. 성적이 자꾸 떨어져 장래가 어둡게 느껴진다.	3.68		3.60		
		3.62	0.68	3.42	0.72	
요인 IV 장래 문제	3. 장래에 현명하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3.87		3.76		t=0.57
	22. 인생의 낙오자가 되지나 않을지 두렵다.	3.34		3.12		
	39. 올바른 인생관이 확립이 되지 않아서 초조하다.	3.38		3.38		
	40.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할지 몰라서 당황하는 수가 많다.	3.52		3.57		
		3.53	0.79	3.50	0.84	
요인 V 가정 문제	20. 가정사정이 복잡하여 집에 들어가기 싫다.	2.32		2.14		t=2.20
	27. 다른 사람에게 부모님을 자랑할점이 없다.	2.42		2.29		
	47. 가정에서 내 의사가 반영되지 않을 때가 많다.	2.99		2.86		
	50. 가족가운데 나의 장래문제를 상의할만한 사람이 없다.	2.60		2.56		
		2.58	0.80	2.46	0.79	
요인 VI 교우 문제	8. 이성애 관한 고민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	3.06		2.97		** t=3.10.
	9. 친구를 사귀고 싶어도 마음대로 잘 안된다.	3.04		2.73		
	17. 인생의 길잡이가 될만한 대상을 못찾아 고민이다.	3.22		3.22		
	18. 장차 훌륭한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3.27		2.98		
		3.16	0.86	2.98	0.84	
전체		3.22	0.56	3.07	0.56	*** t=3.32

** P < 0.01 *** P < 0.001

정도였고 본연구(1993)에서는 $M=3.22$, 3.07 로서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수준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하위 영역별로는 농촌의 경우 학업 문제($M=3.62$)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순위가 장래 문제($M=3.53$), 생활 태도 문제($M=3.29$), 교우 문제($M=3.16$), 자신감의 문제($M=2.99$), 가정 문제($M=2.58$)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의 경우는 장래문제($M=3.50$)가 가장 높았고 학업문제($M=3.42$), 생활 태도문제($M=3.24$), 자신감문제($M=2.79$), 가정문제($M=2.46$)순이다.

농촌이라는 사회적 문화가 다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학업 문제가 1순위로 나타나는 것은 청소년들의 높은 학업적 포부 수준이 배움을 중시하는 유교적 가치관과 부모들의 뜨거운 교육열과 사회의 경제 구조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자신감문제에서는 농촌(2.99)이 도시(2.79)에 비해 높았고($P<0.001$), 학업문제에서도 농촌(3.26)이 도시(3.42)에 비해 높았다($P<0.001$), 교우문제에서도 농촌(3.16)이 도시(2.98)에 비해 높았다($P<0.01$) 장래문제와 생활태도문제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둘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가정문제는 낮은 수준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스트레스 전체로 보았을 때 농촌고등학생(3.22)들이 도시고등학생(3.07)들에 비해 스트레스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P<0.001$). 이것은 환경적인 요인 뿐만 아니라 백양희(1996)의 연구에 의하면 심리적으로서 내적 통제력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 등의 변인들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날의 농촌사회는 이미 지난날의 농촌사회의 전통성을 크게 상실하였기 때문에 약화되어가는 가족관계와 근린관계 속에서 과거와 같은 분명한 가치 규범이나 역할 모형을 제시받고 있지 못하다(Riesman, 1961). 급격한 사회변동 과정에서 사회의 가치 체계가 혼란되고 문화단절 현상이 빚어짐에 따라 가정, 학교, 친구집단 등 여러 사회기관이 제시하는 역할 모형이 상치되어 농촌고등학생들에게 더욱 혼란스러움을 안겨주게 되는 것 같다.

문항별로 보면 농촌도시의 차이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높게 나타난 요인은 농촌의 경우는 '효과

적인 공부방법을 모르겠다'이고, 도시의 경우는 '경쟁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싫증난다'이다.

이것은 지역적으로 농촌의 경우는 부족한 과목을 배울 수 있는 기관(학원)등이 부족한 실정이고 보면 '극복할 수 없는 교과목이 있다'등의 요인이 도시에 비해 높음을 이해할 수 있다. 도시의 경우는 농촌에 비해 보다 더 경쟁적인 사회임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이관용, 김기중, 김순화(1984)가 시험과 평가에 대한 불안과 긴장, 과다경쟁 등을 심각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지적한 것과 본 연구에서의 학업문제에서 나타난 요인(지나친 경쟁, 시험 때의 불안)등은 농촌, 도시 모두에게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농촌의 경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문항인 '장래의 직업 선택 문제'는 농촌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때 도시 가정의 청소년에 비하여 비교적 이른 시기에 자신의 직업이나 생업에 참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농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집안일이 생활에 직결되어 있어서 청소년들도 학교에서 돌아오면 여러 형태로 가사에 참여하며 부모로부터 직접 농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일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교육받는다. 또한 농촌 청소년들은 대부분 일찍부터 가사에 참여하고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따라서 자신이 가정과 가족을 위하여 무엇인가 기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역할 기대치를 갖기 때문에(문인귀외, 1983) 꽤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다.

2. 내적 통제력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의 농촌·도시차이

청소년들의 내적 통제력과 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 농촌·도시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통해 검증하였다. <표 3>

<표 3>에 의하면 내적 통제력과 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 농촌과 도시의 차이를 보였는데 내적 통제력은 농촌(3.20)이 도시(3.27)보다 낮게 나타났다($P<0.05$). 부모의 의사소통에서도 농촌(2.78)이 도시(2.94)보다 낮게 나타났다($P<0.01$). 모와의 의사소통에서는 중 정도의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훈구(1980)

〈표 3〉 내적 통제력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의 농촌, 도시의 차이

변 수	구 분	MEAN	SD	t값
내 적 통 제 력	· 농 촌	3.20	0.37	t=-2.59*
	· 도 시	3.27	0.38	
부와의 의사소통	· 농 촌	2.78	0.52	t=-2.99**
	· 도 시	2.94	0.97	
모와의 의사소통	· 농 촌	3.08	0.51	t=-0.17
	· 도 시	3.09	0.68	

* P < 0.05 ** P < 0.01

에 의하면 개인이 어떤 사회적 지위 또는 어떤 문화의 일원이나에 따라 내적 통제력은 크게 차이가 난다고 밝히고 있다. 강력하게 통제되는 사회에서 사는 사람은 보다 더 외적 통제적이 될 것이며, 부모의 양육방법에서 억압, 지배 등은 외적 통제성과 관련이 있음을 밝혀둔다(Stephens; 1973).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내적 통제력과 부와의 의사소통이 농촌지역에서 더 낮은 것은 아마도 전통사회의 유교사상이 잔류한 부의 권위성 때문이 아닐까 하는 유추가 되어진다.

〈표 2〉, 〈표 3〉을 종합해서 보면 농촌고등학생들이 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환경적인 요인 뿐만아니라 내적 통제력이 도시에 비해 낮음으로, 또한 부와의 의사소통이 도시에 비해 잘 안되므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내적 통제력이 낮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고,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잘 안될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다는 연구결과(백양희, 1996)가 뒷받침해주고 있다. 즉 내적 통제의 성격일수록 Grass(1977)는 스트레스 표현이 적다고 하였고, Stephen(1978)은 스트레스 정도가 낮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내적 통제자 일수록 자기 비난이 더 적다는 연구(Butterfield, 1964)는 내적 통제자일수록 스트레스 사건이 나쁜 영향을 덜 받는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리고 차은정(1992)의 연구 결과에서도 부모 자녀간에 개방적 의사소통을 할수록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Zurich(1992)의 연구결과를 보면 남자 일반 청소년의 문제 행동이 자녀에 대한 모의 태도보다 부의 태도가 청소년 비행에 더 높은

상관이 있음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때, 농촌청소년들의 부와의 의사소통이 잘 안되는 점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임이 필요할 것 같다.

3. 환경변인 및 내적 통제력,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들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변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 회귀분석에 앞서 독립변수들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변수들간의 상관관계가 r=.01에서 .61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배제되었다.
- 독립변인 중 성별은 명명척도이므로 가변수(dummy)화 하였다(남:0, 여:1).

〈표 4〉에서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살펴보면 농촌의 경우는 내적 통제력, 부모의 의사소통, 건강, 친구관계, 모와의 의사소통, 학교생활 만족도 변인으로서 즉 내적 통제력이 낮을수록, 부와의 의사소통이 잘 안될수록, 건강이 나쁠수록, 친구관계가 나쁠수록, 모와의 의사소통이 잘 안될수록, 학교생활이 불만일수록 스트레스 수준은 높게 나타났다. 도시의 경우는 내적 통제력, 성별, 학교생활 만족도, 모와의 의사소통, 친구관계, 부와의 의사소통 변인인데 즉 내적 통제력이 낮을수록,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교생활에 불만일수록, 모와의 의사소통이 잘 안될수록, 친구관계가 나쁠수록, 부와의 의사소통이 잘 안 될수록 스트레스 수준은 높았다.

결국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도 농촌, 도시 종합해서 보면 내적 통제력과 부모와의 의사소

〈표 4〉 환경변인 및 내적 통제력,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농 촌			도 시		
	독 립 변 인	B.(β)	Adjusted · R ² /F값	독 립 변 인	B.(β)	Adjusted · R ² /F값
스트레스	내 적 통 제 력	-0.50(-0.33)***	Adjusted · R ² =0.37 회귀상수=4.98 F=28.72***	내 적 통 제 력	-0.67(-0.45)***	Adjusted · R ² =0.46 회귀상수=4.98 F=48.31***
	부와의 의사소통	-0.16(-0.15)**		성 별	0.27(0.24)***	
	긴 강	0.09(0.15)**		학교생활 만족도	0.09(0.15)***	
	친 구 관 계	0.08(0.14)**		모와의 의사소통	-0.14(-0.15)***	
	모와의 의사소통	-0.14(-0.13)*		친 구 관 계	0.07(-0.12)**	
	학교생활 만족도	0.06(0.10)*		부와의 의사소통	-0.06(-0.09)*	

* P < 0.05 ** P < 0.01 *** P < 0.001

통, 환경변인으로서 친구관계, 학교생활 만족도 등은 공통변인이고 농촌의 경우는 환경변인으로서 건강이, 도시의 경우는 성별이 각각 더 부여된다.

여기에서 Dolly(1964) Stephen, Jensen(1978) 등은 내적 통제력과 같은 개인의 성격특성에 따라 스트레스에 대한 수준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고, 박수환(1976)과 이훈만(1986)의 내적 통제력 및 스트레스 수준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들은 본 연구의 내적 통제력이 낮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는 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또한 차은정(1992)의 청소년 스트레스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관계에서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역시 본 연구의 부모와의 의사소통 변인을 지지해 주고 있다.

다음은 환경변인으로서 친구관계인데 Eisemtdt(1972)등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가족이나 친족 집단의 유대가 약화되면 집안의 어른에게서 벗어나 또래집단(peer group)에서 동일시 대상을 찾으며 수많은 자생적인 친구집단을 형성하고 그들의 집단규범을 따르려는 경향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이것도 오늘의 한국사회처럼 사회변동의 속도가 빠른 사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다. 김정점(1987)의 지방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스트레스 요인으로 가장 높게 차지한 것이 친구관계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친구관계 변인이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중요변인임이 틀림이 없는 것 같다. 도시의 성별변인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스

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는 것은 차은정(1992), 박용자(1988), 이평숙(1984), 최해림(1986)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스트레스 증상이 더 높은 것과 같은 맥락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얻어진 연구결과와 고찰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스트레스 수준을 하위 영역별로 보면 농촌 고등학생들은 학업문제가 가장 높았고, 장래문제, 생활태도문제, 교우문제, 자신감문제, 가정문제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 고등학생들은 장래문제가 가장 높았고, 학업문제, 생활태도문제, 교우문제, 자신감문제, 가정문제 순으로 나타났다. 요인별로는 농촌의 경우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효과적인 공부방법을 모르겠다"이고 도시의 경우는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싫증난다"이다.

스트레스 수준의 전체 평균은 농촌은 3.22, 도시는 3.07로써 중 정도를 나타냈다. 또한 농촌, 도시간의 차이는 자신감문제, 학업문제, 교우문제에서 차이를 보였다. 결국 스트레스 전체로 보았을 때 농촌 고등학생들이 도시 고등학생들에 비해 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농촌 고등학생들이 내적 통제력과 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 도시 고등학생들에 비해 더 낮게 나타났다. 모와의 의사소통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셋째, 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은 농촌, 도시 종합해서 보면 내적 통제력과 부모와의 의사소통, 환경변인으로서 친구관계, 학교생활 만족도 등은 공통변인이고 농촌의 경우는 건강이 도시의 경우는 성별이 각각 더 부여된 변인이다. 결국 농촌, 도시 청소년 모두 내적 통제력이 낮을수록,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안될수록, 친구관계가 나쁠수록, 학교생활에 불만일수록 농촌의 경우는 건강이 나쁠수록 도시의 경우는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다는 결과를 얻었다. 여기에서 생각해 보면 아직도 농촌사회에서는 전통적 인간관이 상당히 잔류해 있는 것으로 유추되어 권위주의와 인정주의 등이 청소년들이 회귀하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축시키고 또한 그들의 미숙함과 과격성을 이유로 그들을 지나치게 억압하거나 무시한다면 더욱 스트레스는 과중되리라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와 고찰을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인구학적 및 내적 통제력 등에 따른 대처방안의 연구가 이루어져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사전 예방적인 자료로서의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2. 부모와의 의사소통 측정에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평가만 다루었을 뿐 부모의 평가는 다루지 못하였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부모와 청소년을 함께 연구에 포함시켜 부모와 청소년들이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심층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인 제도 및 시설이 확충되고, 청소년 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강주태, 청년심리학, 형설출판사, 1994.
- 2) 권호택의 3인역, 스트레스 그 원인과 대책, 중앙적성출판사, 1985.
- 3) 김경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문

제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학위논문, 1989.

- 4) 김철자, "스트레스 생활사건 통제와 성격 및 건강상태와의 삼각관계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83.
- 5) 김은경, "가정환경과 개인문제 해결인식과의 관계",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84.
- 6) 김정겸, "고등학생들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87.
- 7) 노혜숙, "일부 여자중학생의 자아개념 및 스트레스와 적응행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1.
- 8) 문인귀 외, 현대사회와 청소년,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1983.
- 9) 박수환, "중학생의 표출 불안과 내외제적 성격특성 및 관계변인에 관한 연구", 동아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6.
- 10) 박용자, "청소년의 성격특성과 스트레스 인지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1988.
- 11) 백양희, "농촌고등학생들의 스트레스" 대한 가정학회: 제 34권 1호, 1996.
- 12) 송태욱, "한국 아동의 내외 통제성",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 13) 안병조, "고등학교 학생에 있어서 갈등상태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83.
- 14) 윤종태, "고교생의 문제경향에 관한 분석적 연구", 동아대 석사학위논문, 1984.
- 15) 이명희, "고등학생들의 스트레스와 그에 따른 장애에 관한 연구",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1987.
- 16) 이은영, "대학생들의 우울 대응 행동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81.
- 17) 이정숙, 조길자, "고등학교 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생활 변화 사건과 그 척도", 중앙의학 제 43권 2호, 1982.
- 18) 이정순, "스트레스 요인과 그에 따른 대응행동에 관한 고찰",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1988.
- 19) 이종목, "조직에 있어서의 스트레스 요인 및 그 조정변인에 관한 소고", 행동과학연구 제7권, 고려대 행동과학연구소, 1985.
- 20) 이종목, "직무 스트레스의 원인 결과 및 대책",

- 청원사, 1989.
- 21) 이진경, "청년기 학생들의 건강문제 실천 및 요구에 관한 실태조사", *대한간호학회* Vol.4 No.9, 1980.
 - 22) 이평숙, "생활사건과 관련된 스트레스량 측정",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84.
 - 23) 이훈구, "내외 통제성 찬국 초·중·고등학생의 내외 통제성 경향성", 충북대 학생생활연구 제5권, 1982.
 - 24) 이훈만, "중·고등학생의 인생목적과 내외 통제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 석사학위논문, 1980.
 - 25) 임호균, "심약해지는 어린이", *우리청소년* 제2호, 1986.
 - 26) 정옥분 역, *인간발달II*, 교육과학사, 1992.
 - 27) 차은정, "청소년 스트레스와 가족체계 및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울산대 석사학위논문, 1992.
 - 28) 최해림, "한국 대학생의 스트레스 현황과 인지-행동상당의 효과",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86.
 - 29) 한경혜, "농촌가정생활과 자녀교육",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제2권, 1991.
 - 30) 황정규, "한국학생의 의식구조", 고려대 교육문제연구소, 1979.
 - 31) Alexander, J.F., "Defensive and supportive communication in normal and deviant families", *J. of Consulting and Psychology* Vol. 40, 1973.
 - 32) Botter, J.B.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1996.
 - 33) Butterfield, E.C., "Locus of Control, Test Anxiety, Reaction to Frustration, and Achievement Attitudes", *Journal of Personality*, Vol. 32, 1964.
 - 34) Coddington, R.D., The significance of Life Events as Etiologic Factors in the Disease of Children. "A Study of a Normal Population," *Journal of Psychological Research*. Vol. 16, 1972.
 - 35) Riesman, D., "The Lonely Crowd", New Haven: Yale Univ. Press. 1961.
 - 36) Dolly, P 외 "Psychology and Psychiatry for Nurses", English Universities Press, 1980.
 - 37) Eisenstadt S.N., "Archetypical Patterns of Youth", Prentice-Hall, 1972.
 - 38) Glass, D.C., "Behavior Patters and Coronary Disease", Er; baum, Hillsdale New Jersey, 1977.
 - 39) Howard, Barnes. and David H.olson. "Family inventories. Parents-adolescent communication scale", *Social Science, Univ; of minnesota* 290 McNeal. Hall, St. Paul MN55108 1982.
 - 40) Jacob T., "Family interaction disturbed and normal families: A methodological and substantive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Vol. 82, 1975.
 - 41) Jensen, A.R., "Exteaversion, Neuroticism and Learning", *Act a Psychology*, 20, 1962.
 - 42) Kovach, B.F., "The Experience of Adolescence", Scott, Foreman and Company, 1983.
 - 43) Mooney, R.L. & Gordon, L.V. "Manual for the Moony problem check list", N.Y: Psychological Coporation, 1960.
 - 44) Nowieki, S. & Strickland, B.R., "A Locus of control scale for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40, No. 1; 148-154, 1973.
 - 45) Nowieki, S., & Brissett, M., "Internal Versus External of Reinforcement and Reaction of Frust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 1973.
 - 46) Siegel, O., "Personnality Development in Adolescence" *Hand Book of Development Psychology*, Wolmon, B.B. & Striker, G., Englewood Clitls Prentice Inc, 1982.
 - 47) Stephen, N.J., "Reported Stressful Events During Developmental Periods and Their Relation to LOC Orientation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1978.
 - 48) Storkols, P., Navaco, R.W., Storkols, J., & Campbell, j., "Traffic Congestion, Type a Behavior, and Stres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 63, NO.4. 1978.
 - 49) Thomas, E. "Marital Communication and Decision

- Making". N.Y.: The Free Press 1977.
- 50) Watson, D., & BAUMEL, E., "Effects of LOC and Expectation of Furtol upon Present Performace", *Journal Perosnality and Social Psycholgy*, 1967.
- 51) Yee, A.H., "Source and Direction of Influence in teacher pupil Relationship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59. 1968.